

**2021 Spring Aalto EMBA**

**The Impacts of Economic Sanctions on  
Russian Federation:  
A case of Korea's export to Russia**

**Pae, Young Han**

**April 2022**

**2021 Spring Aalto EMBA**

**러시아 경제제재 영향 분석:  
한리테크 수출사례**

**배 영 한**

**April 2022**

# Executive Summary (English)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4, 2022,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led by the US and Europe were further strengthened. The global supply chain has already shrunk due to the Covid pandemic that started in 2020, and while free trade is threatened as before by the outright struggle for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unprecedented due to war and economic sanctions as a punishment. I was caught up in an unprecedented upheaval.

Russia, which succeeded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as tremendous pot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due to its abundant underground resources, vast territory, and high level of basic science. In particular, the import and export items of Korea are complementary, with Korea mainly exporting industrial products to Russia and Russia exporting raw materials to Korea. Successive governments have sought various ways to cooperate due to this potential and mutually beneficial industrial structure. The so-called Northern diplomacy and the Eurasian economic cooperation plan on several occasions fall into this category. However, despite these continuous efforts, Russia's internal problems, such as authoritarianism symbolized by Putin's leadership and endemic corrupt bureaucracy, have hindered Russia's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not as successful as expected due to repeated economic sanctions from the West,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ue to Russia's aggressive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Russia's unexpected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prompted immediate and intense economic sa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Many Western companies, including McDonald's, withdrew from the Russian market, and global shipping companies suspended regular flights with Russia. Foreign exchange remittances with Russia were blocked, and passenger and cargo air routes were also suspended. As the war prolongs,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b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are getting stronger. All measures were taken to weaken Russia's ability to wage war, and in retaliation, Russia has designated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sanctions, including South Korea, as unfriendly countries and has banned the export of several domestically produced item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believe that the weak economic sanctions imposed after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led to Russia's misjudgment and invasion of Ukraine. There is. In addition, Russia is not stopping the war despite the economic sanctions of the West, which is close to economic blockade, and it seems to be willing to go back to the Cold War era wh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ere in confrontation.

As a one-man exporter in Korea amidst such a rapidly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Hanretech was in a situation where Russian importers could not directly remit money to Korea due to economic sanctions. In addition, conventional air transport is no longer available. As a result, they sought bypass exports through a third Russian company, and combined maritime and trucking for export. Also, as was probably the case during the Cold War, procedures were added to determine whether export items were subject to regulation and to obtain approval.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global supply chain and the new trade environment, many exporting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particular, the impact will be much greater for companies trading with Russia, which is directly subject to economic sanctions. However, if we can continuously monitor the ever-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and flexibly revise our export strategy accordingly, we will be able to create new opportunities.

## Executive Summary (Korean)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주도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한층 강화되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비드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어있고, 노골적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이전과 같은 자유무역이 위협당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과 이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경제제재로 인해 전세계 무역환경은 전례없는 격변에 휩싸이게 되었다.

냉전종결후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활한 영토, 높은 기초과학 수준 등의 이유로 엄청난 경제발전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특히 한국과는 그 수출입 품목이 상호 보완적으로 한국은 주로 공산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러시아는 원자재를 한국으로 수출해 왔다. 역대 정권에서는 이러한 잠재력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인해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위 북방외교와 유라시아 경제협력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내부적인 문제, 즉 푸틴의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와 고질적인 부패한 관료제 등이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러시아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반복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22년 2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유럽의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불러일으켰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수많은 서방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고, 글로벌 해운사들은 러시아와의 정기운항을 중단했다. 러시아와의 외환송금은 막혔고, 여객 및 화물 항공노선도 중단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모든 조치들은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취해졌고, 러시아는 그 보복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해서 여러 자국 생산 품목들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합병 후 취해진 경제제재의 강도가 약했던 것이 러시아의 오관을 불러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경제제재를 취해서 러시아의 전쟁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경제봉쇄에 가까운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시절로 회귀하는 것도 감수할 작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외 환경속에서 한국의 1인 수출기업으로서 한러테크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경제제재로 인해 직접 한국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기존의 항공운송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제 3의 러시아 기업을 통한 우회 수출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해상운송과 트럭운송을 복합해 수출하게 되었다. 또한, 아마도 냉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품목이 규제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받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새로운 통상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여러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직접적인 경제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교역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부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유연하게 수출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을것이다.

# 목차

<b>I. 연구 배경 및 목적</b> .....	<b>1</b>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방법 .....	2
<b>II. 환경분석</b> .....	<b>3</b>
1. 2014년 경제제재 .....	3
(1) 경제제재의 시작 .....	3
(2)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에 따른 변화.....	4
(3) 현지 반응 및 시사점.....	4
2. 2022년 경제제재 .....	5
(1) 발단 .....	5
(2) 경과 .....	5
(3) 러시아 국내 영향.....	8
(4)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	8
(5) 한국에 끼치는 영향.....	9
<b>III. 사례 분석</b> .....	<b>10</b>
1. 2014년 경제제재 상황에서의 수출 .....	10
2. 2022년 경제제재 상황에서의 수출 .....	11
(1) 수출 구도 변경 .....	11
(2) 전략물자반출허가 .....	12
(3) 수출물류 및 송금 .....	14
<b>IV. 결론 및 시사점</b> .....	<b>15</b>
1. 요약 및 결론.....	15
2. 시사점.....	16

# 표목차

<표 1>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과정과 주요 대러 제재 현황.....	6
<표 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의 주요 대응조치 .....	7



# 그림목차

<그림 1>. 니켈 Foam sheets.....	11
<그림 2>. 운송용 박스포장.....	11
<그림 3>.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웹사이트 화면캡처.....	12
<그림 4>. 자가관정서.....	13
<그림 5>. 전략물자 자가관정서 관정결과 부분 확대.....	14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 국가간 무역의 본질은 자유무역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은 국경을 통과하는 속성상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러시아는 사회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 이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 소련시절의 제도와 관습이 많이 남아있다. 또한 러시아 언어와 역사, 특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시장 접근성이 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뿌리깊은 관료주의와 만연한 부패는 러시아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재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목재, 천연가스, 석탄 등 주로 지하자원이고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각종 소비재를 포함한 공산품이다. 이는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상생의 교역대상국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러수교 30주년이 넘는 최근까지 신북방정책을 위시한 여러가지 국가적 차원의 경협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많은 한국 제조업이 현지화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례없이 강도 높은 경제제재로 인해 일순간에 무역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로 등장하였다. 러시아 주요은행이 SWIFT 시스템에서 제외됨으로써 외환송금 자체가 힘들어졌고,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던 많은 해운사와 항공운송사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수출입 자체를 하기 어려워졌다.

미국과 EU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계속해서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 러시아 수출금지 목록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거래 가능한 러시아 은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에서도 외환송금이 훨씬 더 까다롭게 통제되고 있다.

참고로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러시아 한국 교역규모는 273억 달러이고 전체 교역(약 1조2600억 달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글로벌 공급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은 절대 적자(수입 173억5000만 달러, 수출 99억8000만 달러) 구조이다.

## 2. 연구 목적

러시아는 지난 2011년말에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다른 가입국가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 및 교역 환경을 조성해 왔으나, 이를 무색하게도 미국과 서방의 그 강도를 달리하는 경제제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소련붕괴이후 열친시절의 혼란을 지나 푸틴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어 온 것이 그 원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와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보복조치등으로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의 경제제재가 무색할 정도의 강도높은 경제봉쇄가 펼쳐지고 있어 그나마 2014년 제재상황에 적응해 온 여러 수출입기업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러한 일련의 경제제재가 구체적인 수출입절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선의 여러 수출입담당자들에게 작으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3. 연구 방법

한러테크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니켈합금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해 왔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으로 촉발된 2014년 경제제재 상황에서의 수출과정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2022년 경제제재 상황에서의 수출 프로세스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경제제재가 실제 무역현장에서 어떤 비용과 시간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고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II. 환경분석

### 1. 2014년 경제제재

#### (1) 경제제재의 시작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고유영토인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여러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들어갔다.

당시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은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러시아 신홍재벌들 중 푸틴정권에 친화적인 몇몇 자산가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로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그 범위나 강도가 그리 강력하지 않았다.

미국이 적용시킨 대러시아 경제제재 형태는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특별제재 대상)과 SSI(Sectorial Sanctions Identifications: 부문별 제재 대상)로 구분된다. 특별제재 대상은 미국과 유럽국들이 개인이나 기업 자산을 동결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국가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출입국도 거부된다. 부문별 제재 대상은 특정 개인의 특정 분야 경제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문별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SDN과 다르게 기업 자산이 동결되지 않으며, 대상 금융권은 신규 거래 시 미국과 유럽국들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제재 대상 은행들은 외국인 투자와 외국계 금융권으로부터 단기 대출(미국으로부터 14일 이내, 유럽으로부터 30일 이내) 외에는 장기 대출과 채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가한 건수(개인, 기관 및 기관)로는 버락 오바마 전 정권 동안 555건, 트럼프 현 정권 기간 동안 264건이다. 경제제재 수준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된 사건은 생화학 무기 사용 금지법에 근거한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 건이었다. 국가 안보 유형으로 러시아 주요 상품 및 기술력 수입을 미국 정부가 강력히 금지시키는데 근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로는 항공산업 관련(민간 항공기 제외), 잠수함, 가스 터빈, 계측기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1월 EU는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 사건 관련 처음으로 개인 대상 제재를 가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415명의 경제제재 대상들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갈등)와 군사활동 관련 개인 비중이 가장 크며 비즈니스맨, 정치인, 공무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0년 7월 기준 미국 제재 대상인 기업 및 기관 수는 526개사, 열병합 발전 관련 133개사, 금융권 117개사, 방산 관련 기업 61개사 등이며 나머지는 도로교통, 투자 및 보험, 부동산

(건물), 공공기관, 정부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 (2)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에 따른 변화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로 크게 3가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방산 산업으로 러시아의 방산품 교역은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EU는 러시아 방산품 및 무기 거래는 근본적으로 금지돼 있고 이중 사용(민간용과 군수용)이 가능할 물자 거래와 군수 기술력 교류도 금지돼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부문이다. 특히 미국 제재 사항에 해당되는데 북극 원유 탐사, 심해 탐사, 셰일 유전 탐사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술협력, 물품 거래가 금지돼 있다. EU 제재 대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은 에너지 연료 추출 및 원유 탐사, 광산업 등을 위해 면허 발급으로 통제 받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이다.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기업의 50% 이상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제재 대상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 이전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하고 제재 대상인지 거래 전에 명확히 밝히는 작업(특정 검수 기관 또는 법률 회사 의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DN 대상 A(개인)이 기업 X사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SDN 대상 B(개인)도 기업 X사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으면 X사는 자동적으로 미국 제재 대상이 된다.

## (3) 현지 반응 및 시사점

미국 및 유럽의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러시아 정부 입장과 경제인 입장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Rosbalt 경제 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알루미늄기업 Rusal사 대표이자 Forbes 대부호 명단에 있는 Deripaska 회장은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그동안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나칠 정도(Unreasonably)로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ass 언론사를 통해 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서방국들의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발전 및 정책 수행 능력이 높아졌고 Nord Stream2 프로젝트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재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최근 7년간의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 적용은 러시아 통상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국가 위신, 부의 재편성 및 서민 경제 민감도 확대, 수입대체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럽 기업들의 미국 반감 확대라는 변수 작용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글로벌 경제 자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중심인 러시아 경제제재의 효력이 어느 선까지 발휘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이다.

## 2. 2022년 경제제재

### (1) 발단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 (2) 경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을 통해 민스크 협정을 파기한 2월 21일 이후 <표 1>과 같이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등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대상 및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러시아의 WTO 최혜국대우 지위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은 특정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고 동결조치에 동참했다. 우리 정부도 3월 2일부터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3월 13일부로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 SWIFT 배제를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맞서 <표 2>에서와 같이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8개 국가들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수출규제품목을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1>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과정과 주요 대러 제재 현황

2월 21일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DPR 및 LPR)의 독립 승인을 통해 민스크 협정 파기 공식화	
2월 22일	러시아 상원, 푸틴 대통령의 해외 무력사용 권한 승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미-러 외무장관 회담(2월 24일 예정) 취소	
	1단계 대러 경제제재 발표	미국, △러시아 기업-금융기관 44개(러시아 수출입은행, 대외경제은행(VEB), 군사 은행 등) 및 러시아 선박 5개 등을 SDN 목록에 추가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국채 거래 제한(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
		영국, 러시아 은행(뱅크 로시야, 흑해은행 등 5개) 제재
독일,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 사업 승인 절차 중단		
2월 24일~	푸틴 대통령,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개시 선언(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우크라이나 전쟁 심화 * 러우크라이나 평화회담 진행 중: 1차(2월 28일), 2차(3월 3일), 3차(3월 7일), 4차(3월 14일)	
2월 24~25일	포괄적 대러 경제제재 발표	미국, △러시아 대형 은행(스베르뱅크, VTB) 포함 90여 개 기업-금융기관 제재(제재 대상별 자산동결,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불계좌 제재, 신규차입-투자 금지 등 적용) △대러 EAR 수출통제(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 제품·부품, 서비스 등/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등 발표
EU, 광범위한 금융제재 외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제한(반도체 및 최첨단 기술 포함) △정유 및 우주-항공 부문 수출 제한 등 발표		
2월 26일		미국/EU/영국/캐나다/일본,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및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등 합의 * [3월 2일] EU, 러시아 7개 은행(뱅크 오토크리티예, 소브콤뱅크, 노비콤뱅크, 프롬스바즈뱅크, 뱅크 로시야, 대외경제은행(VEB), VTB)의 SWIFT 배제(스베르뱅크, 가스프롬뱅크 제외) 및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발표
2월 28일~ 3월 2일		미국/EU/영국/캐나다, 역내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이착륙 및 비행 금지
3월 1~7일		한국, △러시아 은행(스베르뱅크, 대외경제은행(VEB), VTB 등)과의 거래 및 국채 거래 중단(중앙은행, 국부펀드)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EU가 발표한 7개 은행
3월 8~11일	미국, △러시아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 금지 △러시아 최혜국 대우 (MFN) 중단 결정	

3월 9~15일		EU, △러시아 에너지 부문 신규투자 금지 및 관련 장비·기술·서비스 수출 제한(민 간 원자력 제외/ 석유, 가스 등의 EU로의 반출은 허용) △철강제품 수입 및 사치 품(고가의 자동차, 보석 등) 수출 금지 △러시아 최혜국 대우(MFN) 중단 등 발표
----------	--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22년 3월 21일

<표 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의 주요 대응조치

<p>3월 7일 외국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임시절차령 및 외국채권자 특정을위한 비우호국가 리스트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우호국가 리스트]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연방, 러시아 기업 및 러시아인에 대해 비우호 행위를 한 국가 선정</li> <li>◦ [총 48개국] 미국, EU(27개국), 영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li> <li>- [채무이행임시절차령] 채무자(러시아 연방,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러시아 거주자)와 비우호국가 채권자 간의 금전채무(대출, 소비대차, 금융상품 채무) 규제</li> <li>◦ 채무자가 채무 외화 종류에 관계없이 비우호국가 채권자의 외환 채권을 지급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공식 고시 환율에 따라 루블화로 상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월 1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채무)</li> </ul>
<p>3월 9일 러시아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리스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금지] 러시아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제외 모 든 국가로 수출 금지(2022년 말까지): 기존 수입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 금지 목적</li> <li>◦ [금지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반도체소자, 전자 IC 등)</li> <li>- [수출제한] 러시아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 수출 제한(2022년 말까지)</li> <li>◦ [제한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li> <li>※ [공통 예외]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등</li> </ul>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22년 3월 21일



### (3) 러시아 국내 영향

러시아 국내적으로는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및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실물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강도의 자본 통제를 통해 환율 방어 및 자본 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나,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투자 위축으로 실질 GDP가 8~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여 채권 상환의무에 대한 보복조치와 수출통제 조치 등을 통해 맞대응 중이며, 향후 대상국이 확대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자산 동결과 달러 등 외화 거래 제한 등의 금융제재로 재정 당국, 통화 당국 및 기업의 금융 경색이 심화되어 대외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금융경색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타기팅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VIX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 1개월(1.24~2.23) 평균 26.2를 기록하였으며, 발발 이후(2.24~3.14)에는 31.6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은 각종 원자재 및·곡물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전이 등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만일 이러한 고강도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국제금융결제망의 대안 등장 등 세계무역환경과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낮은 대러 의존도(수출 0.36%, 수입 1.05%)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러시아 진출 미국기업의 단기매출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 부담이 커짐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 협상도 검토하고 있다. EU국가들의 경우, 대러 에너지 의존(원유 26.9%, 석탄 46.7%, 천연가스 41.1%)을 제한적으로나마 낮추려 하는 가운데 친원전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예상

된다. 반면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이나 여러 측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며,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은 작으나 일부 원자재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 관련 산업의 공급망 문제, 대러시아 제재의 중국 확산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SWIFT 배제로 인한 영향을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활용한 위안화 거래로 대체하여 최소화할 계획이나 CIPS 독자거래가 가능한 직접참여자 비중이 6% 정도로 낮아 SWIFT 대체 효과는 다분히 제한적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유가상승과 이에 따른 추가하락 및 엔화 평가절상 등으로 실질 GDP가 1.1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쿼드(QUAD) 4국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유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장차 금융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이탈 및 국내 금리상승의 위험요인이 있다.

## (5) 한국에 끼치는 영향

한국의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p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5% 수준, 한국의 총수출 부가가치 중 러시아의 기여도는 2020년 기준 0.57%로 낮으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수출통제 적용품목의 대러 수출 규모도 작아 전체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가 전세계 직접투자의 1% 미만으로 낮고 대부분 현지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바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러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대러 제재가 지속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III. 사례 분석

#### 1. 2014년 경제제재 상황에서의 수출

러시아가 경제제재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적극적인 제재 동참국이 아니었으므로 통상적인 수출과정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니켈합금을 러시아로 수출해 오던 한국 제조사가 경제제재 상황에서 직접 러시아 업체에 수출하는 것은 만에 하나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대상에 해당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제조사 사내에 러시아어 구사자가 없는 관계로 러시아 업체와의 잦은 커뮤니케이션 미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전문 무역업체인 한러테크에게 문의가 들어왔고, 검토후 러시아 및 CIS지역 사업을 일괄 위탁하게 되었다. 한러테크는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거래 이력 사항을 검토하고 러시아 파트너(바이어)와 가격과 수량, 결제조건 등 계약조건과 선적일정 등을 조율하고 CIF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 교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외환 입금을 확인한 후 한러테크는 제조사로 제품을 발주하였다. 이때는 제조공장으로 바로 DHL 픽업서비스를 예약하여 운송업체인 DHL을 통한 One-stop 수출물류를 진행했다.

러시아로의 수출 진행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계약서, 인보이스, 그리고 B/L 등이 있었고 상담에서 선적, 이후 현지 통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운송업체인 DHL을 이용하였으므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신속했다. DHL은 제조사에서 물품을 픽업하고 수출통관도 대행했으며 러시아로의 항공운송, 이후 러시아 국내 운송까지 책임진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트래킹이 가능하므로 러시아 바이어도 본인들이 수입하는 물품이 현재 어떤 단계까지 배송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러시아 국내 통관은 바이어측에서 담당하므로 한러테크 입장에서는 공장 픽업에서 사실상 모든 수출절차가 끝나는 셈이다.

일련의 수출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2014년 이후 진행되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한 특별한 불편 사항은 없었다. 시차, 환율, 선적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한러테크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물류비용은 주로 DHL의 가격정책,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유류할증료의 증감에 좌우되었다. 한러테크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니켈, 철, 크롬, 알루미늄 등의 독특한 합금 제품으로 <그림1>과 같은 Foam sheet의 형태를 띄고 있어 가볍고 얇으며 오버사이즈로 인한 운임할증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절단되어 아래 <그림2>와 같은 형태로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DHL을 통해 항공운송되었다.

<그림 1>. 니켈 Foam sheets



<그림 2>. 운송용 박스포장



## 2. 2022년 경제제재 상황에서의 수출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제재 상황에서 수출 과정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 (1) 수출 구도 변경

먼저 러시아 현지 구매 업체가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미 세컨드리 보이콧을 피해 제조사는 한러테크에게, 다시 한러테크가 러시아 업체에게 수출하던 구도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주요은행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출대금의 회수에도 애로가 생겼다.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러시아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금해야 하는데, 문제는 업체 자체가 제재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방

법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FedEx, DHL 등 글로벌 항공운송업체가 러시아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심지어 EMS를 통한 수출도 막혔다. 결국 구매 업체와 의논 끝에 블라디보스톡의 브로커 업체를 통한 해상+내륙 운송 및 송금을 택하게 되었다. 복잡해진 절차에 따라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명목상의 수입업체는 실제 바이어 업체가 아닌 블라디보스톡의 브로커 업체로 바뀌었다. 서류상 한러테크는 부산항을 통해 블라디보스톡 업체에 수출하게 되었고, 대금도 블라디보스톡 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톡의 브로커는 다시 수입통관비용, 각종 수수료, 한국의 한러테크로 송금해야 할 달러 구매 비용,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륙 깊숙히 위치한 바이어 업체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러시아 루블화로 국내송금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복잡화로 한러테크가 받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제 과거와 같이 CIF 조건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선적하게 되었으므로 제조사에서 부산항까지의 내륙운송이 한러테크 몫이 되었고, 수출통관도 직접하게 되었다.

## (2) 전략물자반출허가

CLC컨테이너에 선적하기 전에 수출물품이 러시아의 무기생산에 사용될 수도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새로운 절차가 더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외무역법에 근거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전략물자관리원 (<https://www.kosti.or.kr>)에서 셀프로 검증을 받아 해당사항이 없어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http://yestrade.go.kr))에 접속해서 수출품목이 수출가능한지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온라인 자가판정 결과 한러테크가 수출하는 물품은 다행히 전략물자가 아닌아닌 것 판정받았다. 자가판정을 받으면 아래 <그림 4>와 같은 자가판정서를 받게되는데 수출통관시 관세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그림 3>.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웹사이트 화면캡처



자가판정서에서 아래 <그림 5>의 판정결과란에 전략물자 비해당 (Uncontrolled) 판정을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림 5>.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판정결과 부분 확대

⑤ 판정결과 Classification results	· 전략물자 해당 Controlled <input type="checkbox"/>	· 전략물자 비해당 Uncontroll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Controlled <input type="checkbox"/>	· 상황허가 대상품목 비해당 Uncontrolled <input type="checkbox"/>
	· 통계번호 Classification No :	
	[WA]민감 <input type="checkbox"/>	[WA]초민감 <input type="checkbox"/>
	[NSG]Part1 민감 <input type="checkbox"/>	[MTCR]Cat1 <input type="checkbox"/>

즉, 수출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사용 혹은 첨단산업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소재나 부품의 경우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수출물류 및 송금

DHL을 통해 거의 윈스톱으로 물품픽업부터 국제항공운송, 러시아 국내배송까지 이뤄졌던 과거에 비해 물류도 복잡해졌다. 먼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수입통관을 거쳐 구매업체까지는 러시아 국내 물류업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해상운송은 LCL 컨테이너로 하게 되었으며, 몇 번의 선박 스케줄 변경이 이뤄졌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벌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단 러시아 영내로 반입된 후부터는 사실상 수출의 과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명목상의 수입업체는 더 이상 실제 구매자가 아니고 블라디보스톡 현지 통관대행업체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늘어나는 운송기간때문에 러시아 수입통관이 끝남과 동시에 달러송금이 이뤄지는 쪽으로 바이어측과 합의했다. 이는 변화하는 상황속에서도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 IV. 결론 및 시사점

### 1. 요약 및 결론

세계 각국의 교역환경은 각각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며 이는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러시아와 같이 사회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국가의 경우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훨씬 더 급격하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고립되어 계획경제의 관료주의에 젖어있다가 개혁과 개방으로 세계 시장에 편입된 러시아의 경우 특히 90년대의 혼란기를 겪으며 2000년대 들어 푸틴중심의 권위주의로 회귀한 상태이며 최근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제적인 고립에 처해 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연착륙에 실패한 것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미국중심의 단극체제에서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새로운 양극체제, 혹은 다극체제로의 세계체제 변화의 흐름에서도 중요한 플레이어로 역할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변화하는 흐름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각기 고립된 새로운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각기 역할을 나눠 공존하는 국제분업은 깨어지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어떤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고 특히 주요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내수 시장이 좁으며 국가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어떤식으로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나 새로운 바이어 발굴 등의 적극적인 사업확장 노력은 당분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제재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제재의 장기화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심화되면 국민소득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곧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 시장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한러테크의 최근 수출사례를 비추어 볼 때, 중소규모의 대러 수출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입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코비드 팬데믹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상호 무비자 입국도 재개되었다. 입국후 자가격리의무도 사라졌다. 이미 많은 이들이 제 3국을 거쳐 러시아로 출장을 떠나고 있다.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이나 벌크 선박은 그 빈도가 줄기는 했지만 거의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오히려 수출대금을 달러로 송금받아야 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문제는 러시아에서 외환 송금이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혹은, 확인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대금지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의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라도 러시아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제3, 제4의 협력업체를 항시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지에 있는 러시아업체로서 현지사정에 밝고 돈독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를 평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사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제재를 회피한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줄여줄 뿐 아니라, 상대 업체에게도 같은 러시아 업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모든 수출입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 2. 시사점

본 사례연구를 통해 무역환경은 예기치 않은 국제정치적 사건들에 의해서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 혹은 예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통관관련 제도나 문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얼마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상무관은 통상세미나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이 막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열려있다. 우크라이나 시장은 일종의 니치(Niche)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장기적으로 각종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신규 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이 항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성진(2022),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중소기업 45(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 이상준(2022),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Issue Brief.
- 이홍섭(2015), 푸틴의 반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JPI정책포럼 2015-01
- 제성훈(2016), 탈냉전기 미·러 관계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지역연구

### <해외문헌>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KRAINE/RUSSIA- RELATED SANCTIONS PROGRAM,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